

가정의 밤은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로이든 지 테릭 장로



주님께서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교성 68:28)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시온...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성 68:25)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간 중의 하나는 가정의 밤 시간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해 실망을 합니다.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부모의 부지런함과 인내는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의 밤은 그렇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며 꾸준히 가정의 밤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밤을 매우 질서있고 사랑과 감사의 분위기가 넘치는 모임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밤에는 자녀들이 참여할

기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별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느낌과 재능을 인정받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들은 문제있는 행동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위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의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써 점차 화평스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순종의 축복이 가정에 깃들게 됩니다.

교회에서 발행한 가정의 밤 자료집에는 자녀들의 흥미를 끄는 많은 좋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정의 밤을 준비할 때 나는 가정의 밤 자료집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읽었습니다. 제시된 특별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흰 종이에 신을 올려 놓고 발자국대로 오려 내어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려 낸 발자국들을 가정의 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곳을 향해 집안 여러 곳에 놓습니다. 나는 그 방법이 유치하고 비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순종하였으며 놀라게도 실제로 우리의 가정의 밤 모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정의 밤 모임에서 가르칠 원리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 토론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뒷 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아들 데이비드에게 가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오분쯤

뒤에 그는 손에 오달리짜리 지폐를 들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 그 돈은 현재보다 다섯 배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느냐?”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샤프 박사님이 가족과 함께 다음 주에 콜로라도의 아스펜으로 가신데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이 저에게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잔디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사님은 저에게 이 오달리짜리 지폐를 주시면서 돌아와 나머지를 지불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한번 실험해 보지 않겠니?”

그는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오달리짜리 지폐를 샤프 박사님에게 돌려 주고 우리가 박사님과 그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니?”

나는 그가 그러겠다고 동의하자 놀랍고도 반가웠으며 샤프 박사가 우리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데이비드에게 억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해 오니 데이비드가 샤프씨의 집 앞 뜰에서 서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살펴보면서 있었습니다. 샤프씨의 집 앞 뜰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으며, 뒷 뜰의 잔디밭은 더 넓었습니다. 샤프 박사는 바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디밭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타에서는 여름에 잔디에 매일 물을 주어야 하며

천안 지방부 대회

그렇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해서 곧 갈색이 됩니다. 샤프 박사의 잔디밭은 갈색 부분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마치 커다란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샤프씨 가족에게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줄까? 잔디에 물을 충분히 주렴. 그러면 다음 주 잔디를 다듬는 것을 도와 줄께.”

데이비드는 승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이웃 사람들은 그가 잔디에 너무 물을 많이 주어 잔디를 죽게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잔디는 곧 질푸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나는 오후 일찍 퇴근해 왔습니다. 이미 데이비드는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마치고 길 건너편에 서서 우리가 한 일을

둘러보았습니다. 샤프씨의 정원이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의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토론 중에 나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 샤프씨의 잔디를 돌보는 것이 즐거웠니?”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아빠.”

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런 일을 했더라면 즐겁지 않았을까? 그것을 말해 줄래?”

그는 질문의 요점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샤프 박사가 감사하지 않았었다면요.”

우리는 느낌을 토로하면서 그 주일 동안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매우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한 가정의 밤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까지도 샤프 박사의 가족 개개인과 모두를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방부 대회

지난 4월 29, 30일 이틀간에 걸쳐 천안 지부에서 천안 지방부 대회를 홍무광 대전 선교부장의 감리로 개최하였다.

지난해 8월 28일 천안, 온양, 홍성, 대천 지부 및 서산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출범한 천안 지방부는 김문집 부장이 89년 6월 교환 교수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부장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방부장으로는 이정은 형제가 제1보좌에 고명환 형제, 그리고 제2보좌에 김구환 형제가 각각 부름받았으며, 천안 지부장에 정채영 형제, 온양 지부장에 유형선 형제 그리고 홍성 지부장에 김노원 형제가 지지되었다.

엘마서 34장 32절을 주제로 택한 이번 대회에서 말씀한 연사들은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대회에서

서산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특별찬송을 해주었다.



이정은 지방부장



대회 광경

서울 서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아시아 지역 회장인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서울 서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가 열렸다.

지난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노량진 와드에서 7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대회 주제로한 말씀을 들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한 최동현 형제가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조정환 형제가 성임되었다.

제1보좌에는 이용환 형제, 제2보좌에는 이희승 형제가 각각 지시되었다.

새로운 대제사 6명과 장로 신권

소유자 6명이 탄생되었다.
말씀한 연사들은 한결같이
온세상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다.



뒷줄 왼쪽부터 서훈 형제(서기), 최창순 형제(서기), 한기호 형제(서기)
앞줄 왼쪽부터 이용환 부장(제1보좌),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 이희승 부장(제2보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04기 수료 (1989. 6. 19~30)

서울 선교부

이종복 장로(부평 와드)

정대홍 장로(삼천포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진철문 장로(창원 지부)

김복희 자매(방어진 와드)

부산 선교부

김수영 자매(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이기현 장로(창원 지부)

정홍식 장로(번동 와드)

황보준 장로(영천 지부)

배상정 장로(상당 와드)

이현주 자매(부평 와드)



부산 스테이크 보이스카웃 유년대 발대식

지난 5월 12일 부산 스테이크는 동대구에 위치한 충렬사에서 양기욱 부장의 감리로 보이스카웃 유년대 발대식을 가졌다.

조상들의 충정이 심어진 역사적인 장소에서 행사를 가진 유년대 소년들은 한국 보이스카웃 부산 연맹 동부 지구 말일성도 제1355단에 속하게 되었다.

사슴 베이스, 쇠막대를 잡으라, 물풍선 전달하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들은 연맹가를 부르고 스카웃 선서와 유년대 규칙을 제창하였다.

현재 부산 스테이크 보이스카웃은 부산의 유년대, 소년대, 연장대와 울산의 지역대로 4개 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산 스테이크는 보이스카웃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서 '90년 한국 잼버리나 '91년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교회를 소개하고 예비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기사 제공: 장미경 기자



서울 동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22)라는 주제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 회장인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스미스 장로는 갑작스런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한 걸음씩 발전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모임은 계속 유지시키되, 효과적인 모임으로 모임 시간을 줄여서 신권 지도자들이 먼저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교회의 세가지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연사로는 구본동 스테이크 부장, 신호범 선교부장, 팔머 성전장, 고원용 지역대표 등이 수고해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수고한 최동일 형제가 해임되고 제2보좌였던 이우영 형제가 1보좌로, 김우석 형제가 새로이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왼쪽부터 김우석 부장(제2보좌), 구본동 스테이크 부장, 이우영 부장(제1보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03기 수료 1989. 5. 15~26)

서울 선교부

김성수 장로(제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문숙 자매(수정 와드)

구진자 자매(상계 1와드)

이미옥 자매(대릉 와드)

부산 선교부

황승호 장로(용현 와드)

한승희 자매(성남 중앙 지부)

박용란 자매(반포 지부)

